

'아스달연대기', 익숙함과 신선한 반전의 공존



tvN 토일드라마 '아스달 연대기'는 540여명의 제작비와 장동건, 송중기, 김우빈, 김지민 등 화려한 배우 라인업으로 첫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큰 기대 속에 지난 1일 공개된 첫 회에는 기존 판타지물을 연상케 하는 익숙함과 함께 신선한 반전이 공

존했다. 기존의 국내 역사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가상의 시대와 공간 설정, 영화 같은 영상과 액션 등이 시선을 끌었다. '540여 대작'이 그려낸 고대사 판타지에 기대를 걸어 봄 적하다.

1회는 은섬(송중기 분)의 탄생 배경과 어린 시절을 비추는 데 중점을

뒀다.

대륙 '아스'에는 사람과 뇌안탈(꿈을 꿀 수 있으며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체력 조건을 갖춘 종족)을 비롯해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었다. 사람은 뇌안탈을 찾아가 마늘과 썩 등을 보여주며 틀어 힘을 합쳐 농경에 기반한 나라를 세우자고 제

가상의 시대와 공간 설정 · 영화같은 영상 등

안했으나 뇌안탈은 거절했다. 그러자 사람은 뇌안탈에게 병이 든 가축 등을 선물로 보내 이들을 말살할 계획을 꾸렸다.

병든 짐승의 고기를 먹은 뇌안탈이 괴질에 시달릴 때 불화살로 공격하기로 한 것. 선물을 전달하는 사절로는 아사훈(추지현 분)이 선택됐다.

아사훈은 이러한 음모를 뇌안탈이 공격 당한 후에야 알게 됐다. 아사훈도 가까스로 빠져나왔고,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껴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뇌안탈인 라가즈(유태오)와의 사이에서 혼혈인 이그트(은섬)와 또 다른 아이 한 명을 낳았다.

아사훈은 아라문(신의 이름)이 나타나 아이들을 주지 않으면 라가즈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꿈을 꿔다. 아사훈은 저항했고, 라가즈는 사람의 습격을 받아 죽게 됐다. 라가즈가 데리고 있던 아사훈의 이그트는 타곤(장동건), 장동건 아역이 데려갔다. 이 타곤은 후에 이그트를 태워 숨겨주며 틀어 힘을 합쳐 농경에 기반한 나라를 세우자고 제

태알하가 이그트에게 문자를 가르쳤다는 사실과,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아사훈은 은섬과 함께 신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인 이아르크로 가기로 결심했다. '대륙'이라는 절벽을 넘어야 했지만 10년의 시간을 지나 결국 이아르크로 가는 데 성공했다. 이아르크에 도착해 지쳐 쓰러진 아사훈이 만난 것은 외한족이었다.

아사훈은 자신 앞에서 있는 외한족의 한 소녀와 은섬이 과거의 꿈 속에서 본 아라문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사훈은 신이 자신을 속여 이아르크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이용했다"며 울부짖었다. 아사훈은 은섬에게 목걸이를 주며 다시 아스달로 돌아가라고 했다.

대륙에서부터 자연이 만든 거대한 장벽이든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질투와 같은 신화적 요소들은 판타지 장르 팬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설정이다. 그러나 '아스달 연대기'는 아사훈에게 닥친 두 번의 배신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신선한 전개로

피했다. 꿈을 꾸는 종족과 꾸지 않는 종족을 나눈 설정 또한 '아스달 연대기'만의 차별화된 부분이다.

판타지물의 완성도에 중요한 요소인 CG도 훌륭했다. 이아르크에 이르기까지 아사훈의 험난한 여정에 몰입할 수 있게 한 것도 웅장한 자연 경관을 뒷받침한 CG 덕이었다. 1회를 책임진 추지현의 열연도 호평을 받을 만했다.

2회에서는 꿈을 꾸면 안되지만 꿈을 꾸는 은섬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송중기는 영화 '늑대소년' (2012)에서 이질적인 종족이자 이방인인 늑대소년을 연기한 적이 있다. '아스달 연대기'에서도 이그트면서 외한족 사이에 섞여 자라게 되는 은섬을 어떻게 연기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중기는 외한족의 소녀 탄아(김지민)와 로맨스도 보여줄 예정이다.

'아스달 연대기'는 이야기의 큰 변화를 중심으로 파트 1, 2, 3으로 나뉘어 방영된다. '파트 예언의 아이들'과 '파트 2 뒤집히는 하늘, 일어나는 땅'이 8회와 12회 분량으로 매주 토, 일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이후 '파트 3 아스 그 모든 전설의 서곡'이 올해 하반기에 방영될 예정이다.

'나혼자 산다' 6월 예능 브랜드 평판 1위



여지수 884,715 미디어지수 1,912,806 소브랑치수 640,491 커뮤니티지수 428,877 시청지수 2,518,502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6,385,391로 분석됐다. 지난 5월 브랜드 평판지수 6,282,397와 비교하면 1.64% 상승했다.

5위, 슈퍼맨이 돌아왔다 브랜드는 참여지수 1,230,051 미디어지수 1,339,923 소브랑치수 671,376 커뮤니

티지수 326,339 시청지수 1,876,531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5,444,221로 분석되었다. 지난 5월 브랜드 평판지수 4,901,988과 비교하면 11.06%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19년 6월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순위 분석결과, 나혼자 산다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카테고리에서는 지난 5월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빅데이터 164,785,379개와 비교하면 1.87% 줄어 들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 참여 19.75% 하락, 브랜드 이슈 3.18% 하락, 브랜드 소브랑 2.94% 하락, 브랜드 확산 4.09% 상승, 브랜드 소비 3.41% 하락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이어 "2019년 6월 예능 프로그램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나혼자 산

다 브랜드에 대한 링크 분석에서는 "좋다, 훈훈하다, 몰입하다"가 높게 분석되었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황민현, 진보, 기안'이 높게 분석되었다. 긍정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 79.06%로 분석되었다"라고 밝혔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브랜드 평판의 변화량을 파악하고 있다.

'이은형님' 남궁민 · 장현성 · 이준혁, 솔직 털털한 입담



배우 남궁민, 장현성, 이준혁이 '이은형님'을 찾아 예능감을 뽐냈다.

1일 방송된 JTBC 주말 예능 프로그램 '이은형님'에서는 남궁민·장현성·이준혁이 진화생으로 출연했다. 세 사람은 KBS 2TV

수목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에서 호응을 맞았다.

함께 등장한 세 사람은 "토요일 밤에 아형이 있다면 수목에는 '닥터 프리즈너'가 있었지. '수목밤을 평정했어'에서 전학왔다"고 소개했다.

남궁민을 본 김희철은 "남궁민이 '인생술집'에 나왔는데 나보고 재미없다 하고 괴롭히고 저질렀다"며 강호동에게 말했다.

그러자 강호동은 "남궁민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에 남궁민은 "난 사실 호동이 무섭다. 25살 때 X엔에 출연했는데 내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내 말을 끊고 날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에 서장훈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비즈니즈 적이다. 오늘은 '닥터 프리즈너'의 남궁민이 왔기 때문에 엄청 잘해줄 거다"라고 말했다.

서장훈은 "남궁민이 드라마에서 다크 히어로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달콤 히어러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애기'로 부른다"며 여자친구 진 이름을 언급했다.

이에 남궁민은 "내가 봤을 땐 너무 애기 같아서 애기라고 부른다"고 설명하며 사랑꾼 면모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장현성은 강호동에게 왜 혼자 그 말도 웃을 입고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은형님 멤버들은 장현성과 강호동이 동갑이라는 걸 알고 화를 낼었다.

이에 장현성은 "나는 지금 동안이다. 그냥 평소에 다니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강호동 웃음을 자아냈다.

그때 이준혁이 "나도 말 좀 하자. 말 할 타이밍이 없다 나 마네킨인 줄"이라며 재치있게 운을 폈다. 이준혁은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에 대해 "대본 받아마자 잘 될 줄 알았다.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혁은 "솔직하게 대본보다 출연배우를 더 본다던데?"라는 물음에, "어떻게 알았냐. 일단 남궁민이 출연하잖아. 앞에 다 터

졌지 않냐. 물어가지"라고 해 폭소케했다.

남궁민은 어려운 대사가 많지 않았냐는 질문에 "맞다.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할 때도 많고, 의약품 용어가 많았다. 대사를 연달아서 할 때 힘들었다고 대답했다.

세 사람은 스스로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했다. 남궁민은 장단점이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남궁민은 "목소리가 차분하고 중저음이다보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켜봐주고 집중해주시는데, 누군가를 웃기고 싶을 때 이런 톤으로 하니 농담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진실로 오해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준혁의 장점은 총박사였다. 밀리터리 덕후라는 이준혁은 "내가 특공대 나왔고 그때부터 좋아했다. 총을 좋아한다"며 총소리를 선보였다.

장현성은 본인의 장점이 밀리의 왕자라고 했다. 장현성은 "비즈니스 내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다"며 멤버들과 함께 재현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오늘의 순세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음력 5월 1일)



▶**쥐** 무엇을 하든 실속 있는 일을 해야지 득이 있다. 희생만 하고 소득 없이 제자리걸음만 한다고 한탄 말라. 이제라도 마음 먹고 재도전하라. 2, 5, 9월생은 변동을 서두르다 손해 볼 듯하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진행함이 좋을 듯.



▶**사** 시야를 넓게 보고 확고한 판단이 있을 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5, 7, 12월생은 이미 시작한 것은 그대로 꾸려 나가는 것이 좋겠으나 금전으로 힘이 딸린다. 바, 오, 췌 성씨는 애정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 내면에 있는 것도



▶**묘** 세상에서 자기만이 고독하고 슬픔을 안고 사는 것 같지만 인생길은 너무나 많이 같은 것. 욕심이 얼마나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취감이 다를 뿐이다. 1, 4, 9월생은 자신을 갖고 일어설 때 북, 서쪽에서 도움 올 듯. 힘을 갖고 전진할 것.



▶**진** 남을 의심하는 것은 자신도 진실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헛된 생각, 헛된 망상 속에서 벗어날 때 어두운 구름 걷히고 태양이 빛남을 알라. 1, 3, 7월생은 생각지도 않던 기쁜 소식을 들 듯. 자신감 있게 하는 일 추진하면 좋은 결과 있겠다.



▶**용** 하는 일 풀리지 않으니 부모, 형제, 가정까지 말же만 느껴지고 항상 혼자 사는 느낌이나.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을 한탄 말라. 개척은 자신이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힘을 얻어 일어서라.



▶**마** 남편과 자녀 문제로 신경을 쓰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된다. 가정 밖의 일까지 책임져야 하니 여자로서 힘겹다. 기, 사, 오 성씨는 건강에도 주의하고 직장 문제로 고심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겠으니 인내하라. 푸른색을 가까이 할 것.



▶**미** 힘들었던 과거를 한 번쯤 돌이켜 보면서 신중히 처신하라. 모든 불운을 남에게 돌리려고만 하지 마라. 원인을 찾고 새로운 삶을 찾는 자세 필요. 1, 2, 3월생은 검정색을 피하라.



▶**원** 단단함을 풀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새롭게 각오하는 것이 좋을 듯.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라. 마음을 비우고 소신껏 행할 때 새로운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축** 밖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돌아오면 남보다 더 못한 사이로 되어가고 있다. 균형 있는 생활로 돌아오기 어렵다. 떠난 사람 잡지 마라. 지혜와 슬기로 재출발이 요구된다. 병, 뱀, 돼지 피의 도움 받을 것.



▶**인** 뜻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는다고 상심 마라. 1, 3, 4월생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자신이 생각한대로 처리함이 좋을 듯.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써 밀고 나가면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희망이 되겠다. 기, 오, 응성씨 용기 필요.



▶**묘** 남들에게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 울고 있다. 가정의 일은 본인들만이 아는 것일뿐 그 누가 알겠는가. 기, 사, 피 성씨 여자는 마음부터 정돈하라. 호트러진 자세로 살아가기란 힘들다는 것을 알라. 3, 9, 11월생 북쪽 사람이 힘 되어 줄 듯.



▶**정** 아무리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있다 해도 불운은 용서 받을 수 없다. 아직은 늦지 않았으니 자신이 설 곳이 어디에 있는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 기, 바, 오 성씨 가장을 위함은 나를 위하는 길임을 알라.